

광기

Wahnsinn

1. 어원 및 개념정의:



<뤼슬리: 광기에 사로잡힌 카테>

명사 Wahnsinn은 형용사 wahnsinnig에서 유래한, 18세기경에 처음으로 나타난 단어이다. 반면에 wahnsinnig는 거의 같은 뜻을 나타내는 wahnwitzig와 함께 이미 15세기에 문헌 속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wahnwitzig는 고고지독일어(ahd) wanwizzi에서 유래한다. 고고지독일어 wan의 의미는 ‘텅 빈’, 혹은 ‘불완전한’이므로, Wahnsinn이 원래 의미하는 바는 Sinn이 없는, 혹은 Sinn이 결핍된, 즉 의미가 없거나 불완전한 의미를 뜻한다.

또 다른 측면은 고고지독일어 wān(희망, 기대)이 변해서 Wahn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고지독일어 wan과 wān이 언어사적으로 합쳐지면서 이 각각의 의미는 서로 영향을 주어서 오늘날의 Wahn은 잘

못된 희망 혹은 텅 빈 희망, 즉 환상이나 망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 광기는 이성을 잃어버린 병적 정신상태를 뜻한다. 또한 오늘날 이 단어는 푸코의 저서 『광기의 역사』를 통해 많은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근대 이후에 광기가 주로 인간의 정신병으로서 격리 또는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광기는 창조성과 관련되어 고찰되었다. 특히 플라톤은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 중에서 광기는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

현대에는 광기의 양상이 주로 천재와 관련되어 오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광기와는 구별되었다. 천재와 정신병과의 관계는 근대에 C.롬브로소를 비롯하여 랑게 등에 의하여 학문적·체계적으로 고찰되었고, 또 광기와 상상력의 관계는 딜타이, 리보를 거쳐서 야스퍼스, 사르트르 등에 의하여 고찰되었다. 특히 푸코는 소위 ‘광기’라는 것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지, 광기라는 말의 고고학적 계보를 추적한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향한 집착이 도를 지나치면서 광기의 수준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인 광기는 20세기 초반에 대두한 스탈린주의와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다.

2. 모티프 발달사

광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시각은 바로 광기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로서 간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고대부터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이와는 전혀 다른 해석은 바로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삶의 고통의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자의 부류로 파악하는 것이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에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몰두하면 정신적인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책을 지나치게 많이 읽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돈키호테). 계몽주의적인 이성적 세계관 속에서 광기는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열정의 결과이다. 하지만 낭만주의부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신적인 상태가 예술가적인 천재성의 징표나 혹은 일상의 세계에서 소외된 개인들의 정신적인 능력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환상이나 정신착란이 신비스러운 체험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이성적 세계는 부정되고 꿈의 세계가 묘사된다.

광기 속에서 나타나는 일탈은 사회의 획일성에 대한 저항으로서 일상적인 삶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티이크 『여행객들』, 호프만 『고양이 무어의 인생관...』). 광기에 대한 묘사에서 병적인 연구가 서술되기 시작한 것은 비로소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광기는 종종 육체적인 병과 다른 요소, 예를 들면 예술적인 욕망이나 환경적인 요소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결국에는 개인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된다(토마스 만 『베니스에서의 죽음』).

20세기 부조리연극 속에서 묘사되는 이 세계는 광기가 가득한 곳이기에, 이 속에서의 우리네의 삶 또한 부조리하다(장 주네 『발코니』). 70년대 이후에 작가들은 개인의 무기력, 대화의 단절, 언어의 무의미성을 강조하면서 주인공들의 정신분열적인 측면을 묘사하거나, 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광적인 집착을 묘사하면서 현사회의 단면을 비극적으로 풍자한다(쥐스킨트 『향수』).

3. 모티프 유형

광기가 긍정적으로 미화되는 경우와 이와는 정 반대로 부정적 현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

1) 긍정적으로 미화되는 광기의 유형

성공한 예술가들에게서 나타는 과도한 집념이 그 예의 하나이다.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술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보호/완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

지나친 지식욕도 광기로 나타날 수 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세상의 창조원리와 그 운용의 이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신성모독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악마와의 계약(피테의 『파우스트』)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도 결국에는 신의 너그러움을 통해서 구원된다.

2)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는 광기의 유형

예술에 대한 광적인 몰두나 과도한 지식욕이 정신적 목적을 위한 광기의 예라면, 실제 생활에서의 성공을 위한 광기도 있다. 이 광기는 구체적으로 직업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에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쥬스킨트 『향수』).

그 외에도 원한을 갚기 위해서 자신을 광적인 증오 상태로 몰고 가다가 결국에는 파멸하고 마는 경우,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하면서 보이는 광적인 잔인함, 혹은 이데올로기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핍박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면서 보이는 증오 등등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광기의 유형들이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광기에 사로 잡히는 원인)	두려움
	죄에 대한 벌
	도취
	죄책감
	직업적인 성공을 위한 과도한 집념
	지나친 독서
	지식욕
	운명
	반예술적인 사회적 환경
	가난
	예술적인 욕망
	복수욕
	권력욕
	질투
악마의 유혹	
과정	살인

	병에 걸림
	근친상간
	세상편력
	전쟁
	악마와의 계약
결과	죽음
	개인적인 파탄
	방랑
	운명의 저주를 벗어남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향수 Das Parfüm』*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 Patrick Süßkind
장르	소설
생성년도	1985
등장인물	그르누이: 주인공 그리말: 무두장이 발디니: 파리의 향수 제조가. 그르누이가 일하는 곳의 사장

5.1. 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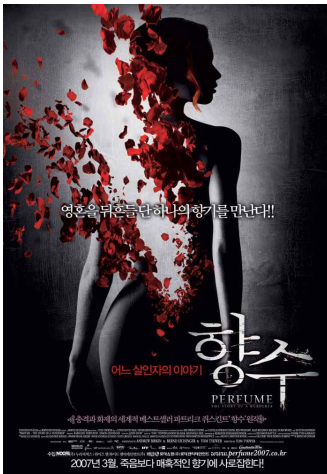
주인공 그르누이는 1738년 7월 17일, 파리 시장의 어떤 생선행상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다. 매독에 걸렸던 그녀는 아이를 생선 좌판에서 낳은 후 아이를 생선 내장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 버리지만 그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는다. 그의 어머니는 유아 유기혐의로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진다. 이때부터 그의 떠돌이 생활이 시작된다. 그는 여러 유모의 손을 거치는데 매번 지나치리만큼 탐욕스럽게 젖을 빨아 미움을 산다. 또한 선천적 추한 생김새 때문에 많은 천대를 받기도 한다. 게다가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지녀야 할 체취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꺼린다. 대신 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후각이었다. 그는 다른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오직 냄새만을 쫓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이다.

우여 곡절을 겪은 후에 그는 무두장이 그리말 밑에서 일을 하게 된다. 어느날 그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희미한 향기에 이끌려서 이 향기를 쫓아가기 시작한다. 그는 강을

* 강명순(역): 향수. 열린 책들, 1995.

건너 거의 반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순전히 냄새를 쫓아가서 어떤 소녀를 발견한다. 그녀가 그 냄새의 진원지였다. 그는 그녀를 목 졸라 죽이고는 그 향기를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었다.

그 후 그는 파리의 향수 제조자인 발디니의 도제로 들어간다. 물론 이곳에서 그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 당연히 그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를 얻게 된다. 하지만 서서히 이 일에 실증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능한 냄새로 가득찬 도시인 파리를 떠나 외딴 동굴로 간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자신의 몸에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놀라기도 한다. 7년 만에 다시 도시 ‘그라스’ 속으로 돌아온 그는 이제부터 인간의 냄새를 만드는 일에 전념한다. 그의 목표는 지상 최고의 향수, 즉 사람들에게 사랑을 불러 일으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향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 그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살인하기 시작한다. 희생자들은 모두 머리칼이 잘린 채 나신으로 발견된다. 그는 25번째 여자를 취하고 결국에는 체포된다.



<영화 향수의 포스터>

드디어 그가 처형당하는 날이 왔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 그는 자신이 만든 향수를 바르고 나 타났는데, 이 향기에 취한 군중들이 그루누이는 절대로 살인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가 타고 있는 마차는 군중에 의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군중들은 집단으로 황홀경에 빠져서 서로 서로 애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향수의 작용으로 살인마인 자신을 존경하게 되는 군중들을 보면서 회의에 빠진다. 자신이 그토록 만들기를 원했던 향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 도시를 떠나서 다시 파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어느 묘지에서 그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맡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의해서 몸이 뜯어먹혀서 죽는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타고난 재능을 직업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이용.
- **서사구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즉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도덕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다가 결국에는 과멸에 이르고 마는 주인공.

원인	비정상적인 몸의 상태(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	----------------------------

	특별한 능력 부모, 사회로부터 버림받음
과정	살인 기술의 습득 인간의 냄새를 모음
결과	새로운 향수의 탄생 사랑을 하게 됨 회의 죽음

6. 작품목록

- 호프만 E.T.A. Hofmann: 『악마의 묘약 Die Elixiere des Teufels』 (1815-16)
 괴테 J. Wolfgang von Goethe: 『타소 Tasso』 (1790), 『파우스트 Faust』 (1808, 1832)
 만 Thomas Mann: 『베니스에서의 죽음 Der Tod in Venedig』 (1913)
 쥐스킨트 Patrik Süßkind: 『향수 Das Parfüm』 (1985)
 하우스만 Gerhart Hauptmann: 『철로지기 티ل Bahnwärter Thiel』 (1888)
 뷔히너 Georg Büchner: 『렌츠 Lenz』 (1839)
 카프카 Franz Kafka: 『선고 Das Urteil』 (1913)

7. 연계 모티프

자아의 분열, 마녀/마법, 병, 살인, 신성모독, 자살, 복수, 죽음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 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소외 + 광기 + 복수 + 살인 + 자살
스토리	어렸을 적에 심성이 너무나도 연약했던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던 학교 친구들에게 성인이 되어서 복수를 해야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이가, 목적을 다 이루고 나서 허무함에 생을 자살로 끝낸다.